

CHARLES & KEITH

보도자료

찰스앤키스, 엠버서더 크리스탈과 함께 한 2022 플로럴-테마 백 & 슈즈 출시

싱가포르의 대표 패션 브랜드 찰스앤키스(CHARLES & KEITH)가 새해를 맞아 브랜드 최초 글로벌 브랜드 엠버서더인 크리스탈(Krystal)과 함께 2022 봄 캠페인 아이템을 출시한다. 이번 컬렉션에선 몽환적인 플로럴 원더랜드를 테마로 탄생한 다양한 슈즈와 백이 공개될 예정.

특히 이번 2022 봄 컬렉션 아이템들은 유쾌하고 프레시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새로 출시될 백과 슈즈들은 반짝이는 컬러와 매혹적인 플로럴 패턴이 들어가 봄의 활기찬 분위기를 한껏 담고 있다. 첫 글로벌 엠버서더로 선정된 크리스탈의 이번 화보 촬영은 한국의 포토그래퍼 윤지용(Yoon Jiyong)이 맡아 현장을 지휘했다.

이번 촬영에서 크리스탈은 그녀의 일상 스타일과 비슷한 모노톤 착장과 함께 이와 대비되는 밝은 컬러의 백과 슈즈를 매치해, 매혹적인 정원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은 캔디 컬러의 코아 백이에요. 클래식한 디자인에 산뜻한 그린과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 어떤 옷이든 환하게 밝혀주죠."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90년대 비디오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 픽셀 프린트도 마음에 들어요. 이번 시즌엔 주로 타이-업 샌들과 가든 스타일의 클로그가 대세일 것 같아요."라며 그녀의 스타일링 팁도 함께 공유했다.

이번 화보에서 크리스탈은 노란 거베라와 붉은 폭죽초 꽃이 가득한 화려한 정원 속에서 머스트-해브 아이템인 '코아 백'을 착용했다. 코아 백은 클래식한 박스 슈입과 화사한 컬러, 볼드한 클로징 디테일을 담아, 복고풍 분위기를 강하게 드러낸다. 호보 백처럼 2000년대 감성을 지닌 이 백은 그녀의 평소 미니멀한 일상 패션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자랑한다.

플로럴 테마의 슈즈 제품도 함께 출시된다. 크리스탈은 플라워 패턴을 입은 샌들과 어반 클로그, 메리 제인 등의 다양한 슈즈를 매치하며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다채로운 포즈를 선보였다. 특히 그녀가 화보에서 착용한 '청키 알렉스 플랫폼 샌들'은 다가올 봄을 겨냥해

CHARLES & KEITH

제작되어 장난스런 앵클 스트랩 디테일이 특징. 크리스탈은 심플한 미니 드레스에 이 슈즈를 매치해 클래식하고 시크한 매력을 강조했다.

2022 봄 컬렉션 아이템들은 오는 2월부터 온라인 몰과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CHARLES & KEITH



CHARLES & KEITH

미디어 부서

CHARLES & KEITH Global Press Office

Phone: +65 6590 7700

Email: PublicRelations@charleskeith.com

CHARLES & KEITH 소개

CHARLES & KEITH 는 세련된 디자인과 컬렉션 제품들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아온 스타일리시한 도시인들을 위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1996 년 기업가 찰스 왕과 키스 왕이 다채롭고 유행에 민감한 슈즈 디자인을 선보이며 패션을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기쁨과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이후로 슈즈와 백, 아이웨어, 액세서리 및 아이템들의 본격적인 라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험적, 이상적, 큐레이티드 및 모던함의 네 가지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찰스앤키스는 언제나 여성을 찬양하며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찰스앤키스는 현재 전세계에 600 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몰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 전역으로 브랜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